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인생 ❧

독일의 잔혹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유태인 예이엘 디무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61년에 나치 히틀러 잔당들을 재판하는 전범 재판이 열렸을 때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이히만이라는 참모를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예이엘 디무르에게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을 똑바로 보십시오. 저 사람이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쳐다보십시오. 아이히만 맞습니까?”

한참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디무르는 그만 기절했습니다.
한참 후에 깨어나자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왜 졸도를 하셨습니까? 과거의 악몽 같은 장면이 살아나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자 그는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저 사람을 쳐다보니 저 사람이 저렇게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수많은 우리 동료들을 가스실로 들어가게 한 장본인이라는 사실 앞에 충격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놀란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광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죄가 있고 절망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새로워질 수 없는 인생이며, 주님의 자비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어둠 속의 인생입니다.

나의 죄와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존재임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합니다.

출처 - 쉽게 풀어쓴 마가복음 이야기 / 이동원 2002/02/25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더 깊은 묵상」제공

http://file.onnuritv.com